

일본 로마자 표기법의 어제와 오늘

강인선

한국외국어대학 감사

1. 들어가기

일본의 로마자 표기법은 16세기의 선교사의 포교 활동에 의해 시작되어, 19세기에 비롯된 한자폐지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자 문제의 하나로, 또한 세계화의 요구(주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발음을 위주로 하여 외국인에게 쉬운 표기나, 정서법을 위주로 한 자국민에게 쉬운 표기나 하는 상반된 요구와 태도의 접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현재에도 그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찍이 외국인에 의해 시작된 발음 위주의 로마자 표기는 '標準式(수정 헵번식)'이라 하는데 '모음은 이탈리아식, 자음은 미국식'의 원칙에 철저한 것이며, 현대에도 인명 역명의 표기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

본의 한자폐지론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로마자론¹⁾이 대두되어 운동이 성숙해 가면서 그 구체적 표기법에 대해 '(예를 들어 방언 사용자가)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정확히 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인에게는 일본의 五十音圖에 기초한 표기법이 마땅하다는 주장의 '日本式' 표기법이 제시되어 세를 모았다. 이 일본식도 모음은 이탈리아식 자음은 미국식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標準式과 日本式的 표기법이 대립하여, 철도 역명의 표기를 둘러싸고 양쪽의 의견대립과 공방이 극심하였다.

중등학교 영어교육 연구 관계에서는 標準式이 절대적이었고, 정부 각부처 간의 표기도 체계가 달라지는 등²⁾ 혼란을 보이자, 표기의 단일화가 국가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양측의 요청에 의해 각계인사들이 모여 6년여의 검토를 거쳐 日本式을 약간 수정한 '訓令式'(1937년)이 정부에 의해 확정되었고 초·중등학교의 로마자 교육이 訓令式으로 정하여졌다. 그러나 이 표기법에서 완전히 배척된 標準式的 지지자들의 거센 반대는 있었지만 훈령식이 정부 부처의 표기로 세력을 얻는 가운데³⁾ 2차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로마자가 적국의 문자라 하여 로마자 표기 논의가 어렵게 되었다. 유엔군의 진주 후의 사회 전반적 분위기나 필요에 의해 로마자 표기는 標準式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었다. 1945년 9월 유엔군

-
- 1) 일본 문자를 로마자로 바꾸자는 주장. 그 주창자들은 가나론자들과 연대하여 한자 폐지 운동을 벌였고 초등학교에서 로마자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의를 냈으며 전후에 그 실현을 보았다. 운동이 세력을 얻을수록 그 구체적 표기에 관한 상반된 태도가 두드러져 학회도 양분하여 별도의 단체를 만들었다.
 - 2) 1913년 중앙 기상대가 지명 표기에 일본식 로마자를 채용, 1927년 철도성이 철도 역명의 로마자 표기에 헵번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확인, 1928년 해군성은 일본식 로마자를 채용, 1929년 육군성은 일본식 로마자를 채용하였다.
 - 3) 1937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역명표를 훈령식 로마자를 채용하였고, 이듬해 문부성이 여권의 로마자 표기를 원칙적으로 훈령식에 의하도록 하였고, 문부성에서는 영어과 교육에 훈령식 로마자를 쓸 것을 관계기관에 통달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최고사령부의 지령으로 공적인 표기는 ‘표준식(헵번식)’으로 정하였다. 철도의 역명을 기존의 훈령식에서 표준식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철도 역명은 표기 원칙의 변화를 겪는다. 표준식 → 훈령식 → 표준식으로 되었다. 1946년 한자 제한과 함께 시작된 일본어의 현대 표기가 성립되면서 로마자론에 큰 진전이 있었으니, 6·3·3 신학제 초·중등학교의 국어과에 로마자 교육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⁴⁾. 내각의 훈령으로 訓令式 표기를 채택한 것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조치에 대하여, 새로 표기 기준을 제시한 것이 1954년에 ‘內閣告示’로 공포한 현행 표기법이다. 현행의 표기법은 日本式을 수정한 訓令式을 기본으로 하고 그와 차이가 나는 標準式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쓰는 이의 선택에 의해 표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어느 한 쪽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방식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우리의 로마자 표기 사정과 다른 점이다.

본고는 일본의 로마자 표기법의 현행 기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아직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현행 표기법의 문제와 실태를 중심으로 다룬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자 한다.

2. 로마자 표기법의 성립

2.1 표기의 대상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는, 한 음운에 대응하는 로마자를 정하는 국어와는 달리

4) 1947년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의 로마자 교과서를 만드는데 내각에서 정한 ‘훈령식’ 표기 외에 ‘표준식’ 표기의 교과서를 별도로 만들고 그 선택을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그 훈선의 예이다. 초등학교용이 훈령식인 제1종 ‘TARÔ SAN’과 표준식인 제2종 ‘TARÔ SAN’이고, 중학교용의 제1종이 ‘WATAKUSITATI NO MATT’이고 제2종이 ‘WATAKUSHITACHI NO MACHI’였다.

일본어의 음절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일본 가나가 음절문자이기 때문이다. 모음 음절 이외의 음절은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지며, 단 鼻音인 하네루온(ん)과 喉頭音인 쓰마루(っ)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특수 음절이다.

일본에는 이들 음절을 나타낸 표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데, 동류의 자음을 가진 음절을 배열한 行과, 같은 모음을 가진 음절을 배열한 段이 가로세로 5개×10개로 이루어진 소위 五十音圖⁵⁾이다. 'か(가)行'은 'か・き・く・け・こ'를 가리키며, 'あ(아)段'은 'あ・か・さ・た… や・ら・わ' 등을 가리킨다. 이 오십음도는 당시의 음운 지식으로 정리한 가나표라고 보면, 곧 음절표이기도 하여, 음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본어 동사활용⁶⁾의 어간 모음을 다루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여 왔다. 여기에 원래에는 없었던 탁음 부호를 가진 음절과 이중모음을 가진 음절을 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설명의 편의상 한글로 음을 붙였다)

(1) 五十音圖

- 5) 만든 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0-11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작 동기는 한자음의 설명 학습을 위한 것이라거나 悉曇(불교 관계의 산스크리트어)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표의 ()는 중출을 나타내며, < >는 발음으로는 윗행과 같으나 표기 상의 허용을 얻은 음절들이다. 마지막 줄은 근대어 이후에는 음운 변화를 반영하였으나, 예전에는 'わ る う ゑ を'였었다.
- 6) 에도시대의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동사 활용시 교체되는 모음의 종류를 모음의 종류에 따라 동사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다. 동사 '立つ(기본형)'의 경우 '立ち-ます, 立てば, 立た-ない, 立と-う'와 같이 활용하여 'たち(つ) て'가 교체하여 나타나는 것을 문어에서는 5단활용, 현대어에서는 4단활용이라 한다. 문어의 경우 '五段活用, 上一段活用, 上二段活用, 下上二段活用...' 등으로 분류한 것은, 교체되는 모음의 종류가 'あいうえお 5종, い 1종, う 2종, うえ2종'임에 기인한다.

あ い う え お 아 이 우 에 오				
か き く け こ 카 키 쿠 케 코	きゃ きゅ きょ 카 키 쿄	が ぎ ぐ げ ご 가 기 구 게 고	ぎゃ ぎゅ ぎょ 가 가 유 요	
さ し す せ そ 사 시 스 세 소	しゃ しゅ しょ 샤 슈 쇼	ざ じ ず ぜ ぞ 자 지 즈 제 조	じゃ じゅ じょ 자 주 조	
た ち つ て と 타 치 쓰 테 토	ちゃ ちゅ ちょ 차 추 초	だ(ぢづ)で ど 다 지 즈 데 도	ぢゃ ぢゅ ぢょ 자 주 조	
な に ぬ ね の 나 니 누 네 노	にゃ にゅ にょ 냐 뉴 뇨			
は ひ ふ へ ほ 하 히 푸 헤 호	ひゃ ひゅ ひょ 하 휴 효	ば び ぶ べ ぼ 바 비 부 메 보	びゃ びゅ びょ 바 유 보	
ま み む め も 마 미 무 메 모	みゃ みゅ みょ 마 유 묘	ぱ ぴ ぷ ぺ ぽ 파 피 푸 페 포	ぴゃ ぴゅ ぴょ 파 유 표	
や(い)ゆ(え)よ 야 이 유 에 요				
ら り る れ ろ 라 리 루 레 로	りゃ りゅ りょ 랴 류 료			
わ(い)(う)(え)(お) 와 이 우 에 오				

위 음절표에 나타나지 않은 음절은 鼻音인 하네루온(ん)과 喉頭音인 쓰마루온(っ)이며, 이들은 따로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2.2 헵번식 이전의 표기

일본어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이 '표음식으로, 음절 단위로, 모음은 이탈리아어식 자음은 영어식'이라는 것으로 정해지는 헵번식 이전의 표기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로마자가 보급된 것은 16세기 예수회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활동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포교를 위해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어의

학습서 사전을 만드는 한편 일본어로 된 이야기책 등을 로마자로 출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 방식이 성립되기에 이른다. 소위 '그리스도교 자료(キリシタン資料)'에 쓰인 로마자⁷⁾는 당시의 발음을 표기하였는데, 나가사키에서 발행된 <日葡辭書(1603)>의 표기 가운데 현행 표기와 다른 것이 들어 있는 행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표는 이 표기이며, 같은 행의 음절에 해당하는 자음 표기가 다른 것은 실제 음가에 가장 가까운 표기를 하려 한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표기 정신은 훗날의 標準式과 상통한다.

(2) あ : a	い : i(y,j)	う : v(u)	え : ye	お : vo(uo)
か : ca	き : qi	く : cu(qu)	け : qe	こ : co
さ : fa	し : xi	す : su	せ : xe	そ : fo
た : ta	ち : chi	つ : tçu	て : te	と : to
は : fa	ひ : fi	ふ : fu	へ : fe	ほ : fo
ざ : za	じ : ji	ず : zu	ぜ : je	ぞ : zo
だ : da	ぢ : gi	づ : zzu	で : de	ど : do
や : ya		ゆ : yu		よ : yo

7) 예수회 선교단인 포르투갈어계라도 자료에 따라 표기의 차이가 있다. <ドチリナキリシタン(1592)>(아마쿠사 발간)에서는 많은 異表記가 보인다.

か : ca(qa)	き : qi(qui)	く : cu(qu)	け : qe(que)	こ : qo(quo)
さ : fa(sa)	し : xi	す : fu	せ : xe	そ : fo(so)

도미니크회 선교단인 스페인어계의 <日本文典(1632)>(콜리아드 저, 로마 발간)의 표기는 차이가 있다.

あ : a	い : i	う : v	え : ie	お : vo
か : ca(qa)	き : qi	く : cu(qu)	け : qe	こ : qo
さ : sa	し : xi	す : su	せ : xe	そ : so
た : ta	ち : chi	つ : tçu	て : te	と : to
や : ia		ゆ : iu		よ : io

이 표기의 실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속우화(天草版 伊曾保物語, 1593년 간)의 한 구절이다. 일본어 문장 전체를 로마자화하고 있는 점이 언어자료로서 가치를 더해 준다.

- (3) Yenocouo fono xujin aixite, tçuneni fizano vyeni voqi,daqi
cacayete funinuo cuuayerareta. (이를 현행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꾸
어 보면 : Inuko o sono syuzin aisite tune ni hiza no ue ni oki,
daki kakaete hunin o kuwaerareta.)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이러한 표기는 외국인을 위한 표기법이므로 표기 주체가 어느 나라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나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17세기 에도 막부의 쇄국정책에 의해 선교사가 추방되고서 유일하게 통상을 하였던 네덜란드인들이 일본에 관한 저술을 하면서 독자적 로마자 표기를 하게 되고 이 쇄국의 시기에 독일인, 프랑스인, 영국인, 러시아인 등도 네덜란드인을 가리키는 '란진(蘭人)'으로 일본에 들어와 각기 독자적인 로마자 표기를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인에 의한 로마자의 소개 사용이 이루어져 훗날 日本式的 선구가 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어 쪽 자료인 <日本文典(1857)>에는 이 표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무성자음 사이에 있는 高母音(う)이 무성화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 특색이다. 모음우의 표기를 oe로 한 것이 특이한데, 이는 모어의 영향일 것이다.

(4) あ : a	い : i	う : oe	え : e	お : o
か : ka	き : ki	く : koe(kf)	け : ke	こ : ko
さ : sa	し : si	す : soe(s)	せ : se	そ : so
た : ta	ち : tsi	つ : tsoe(ts)	て : te	と : to

は : fa	ひ : fi	ふ : foe	へ : fe	ほ : fo
ざ : za(dza)	じ : zi	ず : zoe	ぜ : ze	ぞ : zo
だ : da	ぢ : dsi	づ : dsoe	で : de	ど : do
や : ja		ゆ : ju		よ : jo

일본의 蘭學者인 오오쓰키(大槻玄澤)의 〈蘭學階梯(1785)〉 등에서는 모음의 무성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한 행의 자음은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어서(た행, ざ행, だ행 등)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표기의 특색을 보인다.

(5) き : sa	し : si	す : soe	せ : se	そ : so
た : ta	ち : ti	つ : toe	て : te	と : to
ざ : za	じ : zi	ず : zoe	ぜ : ze	ぞ : zo
だ : da	ぢ : di	づ : doe	で : de	ど : do

이후 1858년 미국에 의해 개항되고서 일본인이 쓴 외국어 학습서나 영어권 사람이 쓴 일명사전류가 많이 나오면서 각국의 용자법을 반영한 로마자 표기가 나타나는데 발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 최초의 일명사전은 미국인 선교사이자 의사인 헵번(James Curtis Hepburn)의 〈和英語林集成〉(1867)인데 표기는 발음 위주로 하고 무성의 모음은 적지 않고 있다.

(6) あ : a	い : i	う : u	え : e	お : o
か : ka	き : ki(k')	く : ku	け : ke	こ : ko
さ : sa	し : shi(sh')	す : sz(su ²)	せ : se	そ : so
た : ta	ち : chi(ch')	つ : tsz(tsu ²)	て : te	と : to
は : ha	ひ : hi(h')	ふ : fu	へ : he	ほ : ho

ざ: za	じ: ji	ず: dz(dzu ²)	ぜ: ze	ぞ: zo
だ: da	ち: (ji)	づ: (dz, dzu ²)	で: de	ど: do
や: ja		ゆ: ju	え: ye(e ²)	よ: jo

2.3 각 식의 성립

2.3.1 헵번식

1885년 가이야마(外山正一)·챌벌린 등에 의해 조직된 ‘羅馬字會’가 ‘발음에 따라’서 ‘자음자는 영어에서 통상 쓰는 음을 취하고 모음자는 이탈리아어의 음(즉 독일어 또는 라틴어의 음, a·i·u·e·o)을 채용하기로 한 ‘로마자’로 일본어를 쓰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헵번이 그의 사전 〈和英語林集成〉의 제3판(1886)에 채용하였기 때문에 이 방식은 보통 헵번식으로 불린다. 무성화한 모음을 “”으로 나타냈던 것을 재판(1872)부터는 활용형 표시의 통일을 위해서 su, tsu, zu처럼 u를 보태서 표기하게 되었다. 곧 로마자의 음절표기 태도를 확립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어의 어말에 주로 나타나는 ‘ます(우리말 ‘습니다’에 해당)’는 실제 발음에서 마지막 모음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표기는 ‘masu’이다. 헵번식의 의의에는 이 점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후 1908년에 앞의 (6)에서 보인 ye를 비롯하여 kwa, gwa, wo를 삭제하는 개정을 한다. 이 개정된 것을 ‘標準式’ 또는 ‘改正헵번식’이라 한다. 일본어 로마자의 표음 위주의 표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2.3.2 標準式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헵번식을 현대음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舊國鐵驛名, 人名에 널리 쓰여, 현행 방식에서는 제2표(3.1. 참조)의 위에서 다섯째 줄까지의 sha, shi, shu, sho, tsu, cha, chi, chu, cho, fu, ja, ji, ju, jo 등이 標準式

이다. 장음은 “로 나타내는 점은 현행과 같고 소쿠온(促音)은 다음 자음의 첫 글자를 적는데, ch앞에서는 t로 적는 점이 현행 방식과 다르다. 하네루온을 p·b·m의 앞에서는 m으로 적고 나머지는 n으로 적는다. 뒤에 모음 음절이 올 때는 “을 붙이도록 하였다. 앞의 (1)음절표에서 ち行의 음절 가운데 し의 음가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보이고자 한 표기이다. た行의 ち와 つ도 각기 다르고, は行의 ふ와 ㅎ행의 じ가 다름을 나타낸 것이다.

2.3.3 日本式

1886년 다나카다테 아이키치(田中館愛橘) 등이 제창한 방식으로, 〈羅馬字會〉의 표음적 방식에 대항하여, 일본 고래의 五十音圖의 규칙성을 기초로, 같은 행의 음은 같은 자음자로 나타내려고 한다. 대체로 訓令式과 같으나, 현행 제2표의 아래 넉 줄에 있는 di, du, dya, dyu, dyo, kwa, gwa, wo (wo는 조사에 한정)는 日本式的 철자법이다. 또한 명사의 어두는 항상 대문자로 쓰도록 되어 있다. 장음은 ‘-나 “로 나타내고, 하네루온은 n으로만 나타내고 뒤에 모음 음절이 올 때는 “로 표시를 붙이는 것을 처음 규정하였다. 이 표기 방식이 음절표에 근거한 轉字방식이라고 하나 조사 ‘は, へ’의 경우는 원래의 음가 ‘ha, he’가 아닌 실제 발음을 따라 ‘wa, e’로 표기하고 있는 점은 표음주의의 적용이다. 또한 정서법이 1946년 현대철자법에 의해 표음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실제 발음과 표기의 차이가 많이 났다. 예를 들어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 いきませう’ いましよう’ 등. 장음의 표기가 그러했는데 일본식은 장음을 실제 음가를 취하여 로마자화했던 점도 불완전한 轉字法임을 보여 준다⁸⁾. 그러나 이 장음 표기는 정서법이 바뀌므로

8) 철저한 轉字방식으로 이전 정서법에 의한 로마자 표기도 있었다. 나미베(南部義壽)의 〈Tosa no NiKi(1894)〉, 가타야마(片山國嘉)의 〈羅馬字の假名式遣式(1914)〉 등이 그것이다.

해서 전자 방식에 가까워졌다.

2.3.4 訓令式

1937년 〈국어 로마자 철자법에 관한 건(國語ローマ字綴リ方ニ關スル件)〉이訓令으로 공포되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訓令式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표는 현행 제1표와 동일하다. 이 표 외의 것에 관한 규정⁹⁾중 ‘장음’의 표시와 ‘음절 경계’의 표시는 현행의 것과 다르다.

(7)

	훈령식	현행
장음 표기	Okāsama, Kyūsyū, Ōsaka	Okāsama, Kyūsyū, Ōsaka/Oosaka
음절 경계 표시	hin-i, kin-yōbi, Sin-ōkubo	hin'ī, kin'yōbi, Sin'ōkubo/Shin'ōkubo

이 訓令式은 다행음의 ‘ち, づ, ぢゃ, ぢゅ, ぢょ’와 조사 ‘を’를 달리 표기하고, 방언에만 있는 음절 ‘くわ, ぐわ’를 표기하는 日本式과 다른 점이 있으나, 원

9) ‘훈령식’의 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과 3을 제외하고는 현행의 규정에 그대로 이어졌다.

- 1) 장음 부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Okāsama, Kyūsyū, Ōsaka처럼 ‘-’를 쓸 것.
- 2) 하네루온(撥音)은 모두 n으로 나타낼 것.
- 3) 하네루온(撥音) n과 그 다음에 오는 모음(y 포함)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hin-i, kin-yōbi, Sin-ōkubo처럼 ‘-’를 쓸 것.
- 4) 축음은 gakkō, happyō, tossa, Sapporoc처럼 자음을 겹쳐 적을 것.
- 5) 글의 처음 및 고유명사는 Wagakunino ...Shizuoka, Masasige처럼 어두를 대문자로 할 것 또한 고유명사 이외의 명사의 어두를 대문자로 하여도 상관없음.
- 6) 특수음의 표기는 자유로 함.

칙적으로 일본어 가나표기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日本式에 가까운 것이다. 일본인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구미인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어서 결국 통일화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긴다이치 외 1988 : 350-351).

3. 현행 로마자 표기법

3.1 표기 원칙과 대응표

고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단, 표 안의 가나 표기는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임).

內閣告示 第一號

국어를 표기하는 경우에 쓰는 로마자의 철자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54년 12월 9일

내각총리대신 요시다 시게루

로마자의 철자법

전서

1. 일반적으로 국어를 표기하는 경우는 제1표에 든 철자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국제적 관계 기타 종래 관례를 갑자기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표에 든 철자법에 의하여도 상관없다.
3. 앞 두 항 어느 경우에도 대개 첨서를 적용한다.

a	i	u	e	o
あ	い	う	え	お
ka	ki	ku	ke	ko
か	き	く	け	こ
kya	kyu	kyo		
きゃ	きゅ	きょ		
sa	si	su	se	so
さ	し	す	せ	そ
sya	syu	syo		
しゃ	しゅ	しょ		
ta	ti	tu	te	to
た	ち	つ	て	と
tya	tyu	tyo		
ちゃ	ちゅ	ちょ		
na	ni	nu	ne	no
な	に	ぬ	ね	の
nya	nyu	nyo		
にゃ	にゅ	にょ		
ha	hi	hu	he	ho
は	ひ	ふ	へ	ほ
hya	hyu	hyo		
ひゃ	ひゅ	ひょ		
ma	mi	mu	me	mo
ま	み	む	め	も
mya	myu	myo		
みゃ	みゅ	みょ		
ya	(i)	yu	(e)	yo
や	ゅ	よ		
ra	ri	ru	re	ro
ら	り	る	れ	ろ
rya	ryu	ryo		
りゃ	りゅ	りょ		
wa	(i)	(u)	(e)	(o)
わ				
ga	gi	gu	ge	go
が	ぎ	ぐ	げ	ご
gya	gyu	gyo		
ぎゃ	ぎゅ	ぎょ		
za	zi	zu	ze	zo
ざ	じ	ず	ぜ	ぞ
zya	zyu	zyo		
じゃ	じゅ	じょ		
da	(zi)	(zu)	de	do
だ			で	ど
(zya)	(zyu)	(zyo)		
ba	bi	bu	be	bo
ば	び	ぶ	べ	ぼ
bya	byu	byo		
びゃ	びゅ	びょ		
pa	pi	pu	pe	po
ぱ	ぴ	ぷ	ぺ	ぽ
pya	pyu	pyo		
ぴゃ	ぴゅ	ぴょ		

제 1 표

참서

앞 표에 정한 것 외에 대개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하네루은 'ん'은 모두 n으로 적는다.
2. 하네루은을 나타내는 n과 다음에 오는 모음자 또는 y를 분리할 필요가 있

sha	shi	shu	sho
しゃ	し	しゅ	しょ
tsu			
つ			
cha	chi	chu	cho
ちゃ	ち	ちゅ	ちょ
fu			
ふ			
ja	ji	ju	jo
じゃ	じ	じゅ	じょ
di	du	dya	dyu
ぢ	づ	ぢゃ	ぢゅ
dyo			
ぢょ			
kwa			
くわ			
gwa			
ぐわ			
wo			
を			

제 2 표

을 때에는 n의 다음에 '를 넣는다.

3. 쓰마루온은 다음 음절 첫 자음자를 중복하여 적는다.
4. 장음은 모음자 위에 ^를 붙여 나타낸다. 한편 대문자의 경우는 모음자를 나란히 써도 된다.
5. 특수음의 표기 방법은 자유로 한다.
6. 문자의 처음 및 고유명사는 첫자를 대문자로 쓰고 또 고유명사 이외의 명사의 첫자를 대문자로 써도 좋다.

3.2 표기 체계의 성격

제1표는 소위 훈령식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일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즉 五十音圖를 활용하여 같은 행의 자음은 단일한 자음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표기법이다. 그렇게 하면 로마자를 보면서 일본 문자를 쉽게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서 1'에서 일본어를 표기하는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전보문이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의 로마자 입력 등에서 쓰이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로마자 학습은 이 표에 의거한다.

이에 비해 제2표는 국제적 관계에 쓰이거나 기존의 관례를 인정하는 수준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총 아홉 줄 가운데 위의 다섯 줄 15개 음절은 표준식의 표기를 보인 것이다.

(8)	しゃ	し	しゅ	しょ	つ	ちゃ	ち	ちゅ	ちょ	ふ	じゃ	じ	じゅ	じょ
훈령식	syā	si	syu	syo	tu	tya	ti	tyu	tyo	hu	zya	zi	zyu	zyo
표준식	sha	shi	shu	sho	tsu	cha	chi	chu	cho	fu	ja	ji	ju	jo

제2표의 아래쪽의 8개 음절은 일본식의 로마자 표기를 인정한 것이다. 발음상

으로는 없어졌으나 정서법에 남아 있는 것(/선 앞)과 표준어에서 없어져 정서법으로도 적지 않는 것에 관한 표기이다. 이 가운데 ‘을’은 조사에 한정된다.

(9) ち づ ちゃ ちゅ ちょ を / くわ ぐわ

훈령식 zi zu zya zyu zyo o / (ka) (ga)

일본식 di du dya dyu dyo wo / kwa gwa

예를 들면 정서법에서 실제 발음은 つづり이지만 철자를 ‘つづり’로 적도록 한 것, 현대어로는 분석할 수 없으나 2단어로 된 ‘いなづま’ 등의 표기를 ‘いなづま’로 할 수 있게 한 것¹⁰⁾ 등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공통어에서는 ‘kasi’라는 동음어(貸し(屋), 菓子)가 일부 방언에서 첫 음절이 분명히 구별되고 있으므로 kwa를 일본어 음절로 인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2표에 들어 있는 음절들의 성격이 일률적은 아니지만 음절을 나타내는 표기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첨서의 6가지 사항들 중 1-4항이 역대의 방식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표준식	일본식	훈령식	현행
1항	Shimbashi	Sinbasi	Sinbasi	Sinbasi/Shimbashi
2항	hin'i	hin-i/hin'i	hin-i	hin'i
3항	itchô	ittyô/ittyô	ittyô	ittyô/itchô
4항	gasshō	gassyô/gasshō	gassyô	gasshō

10) 소위 ‘四つ假名’라 하여 13세기까지는 구별되었던 ‘じ, ず, ち, ず’ 네 개의 가나가 현대어에서는 방언에 따라 1개, 2개, 3개로 합류된 것이 많은데, 공통어에서는 ‘じ, ず’ 2가지로 나타난다.

4. 기타 문제와 전망

4.1 KBS와 NHK

로마자는 계량 단위의 약호(km, cm, kg, ha),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외국어의 어두 대문자를 한 자씩 읽는 것의 표기(PR, CD, GNP, MVP, JR, JTB), 그리고 영어식으로 붙여 읽는 어두 대문자 표기(GATT, SALT, RAM), 양쪽을 절충한 표기(TV, vs, CATV) 등에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우리와 다른 용법이 있는데, 일본어를 로마자로 써서 그것의 어두 대문자를 한 자씩 영어식으로 읽는 것이다. 日本放送協會(Nihon Hōsō Kyōkai)를 NHK(엔에치케), 國際電信電話局(Kokusai Densin Denwakyoku)를 KDD(케디디)라고 하며, 일반명사인 株式會社(Kabusiki Kaisha)를 KK(케케)라 하여 日興證券KK, 伊藤忠商社KK처럼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유독 정치권에서 인명이나 지역 이름에만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YS, DJ, PK, TK). 우리의 KBS는 영어의 어두 문자인 반면 NHK는 일본어의 어두문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영어 대문자로 된 略語표기는 영어에서 온 약어인지 일본어에서 온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12) JR : Japan Railway(日本鐵道 : 國鐵)

NHK : Nihon Hōsō Kyōkai(日本放送協會) 참고 KBS : Korean Broadcasting Station(한국방송공사)

4.2 띄어쓰기의 문제

일본어의 공식 문체인 한자와 가나로 쓴 문장은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 않으나, 단일한 글자로만 쓰인 히라가나문, 가타카나문, 로마자문은 띄어쓰지 않으면 문

장의 뜻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우리의 경우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가 규정되어 있는 데에 비해, 일본어에는 따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로마자로 일본어 문장을 적을 경우 그 방식이 문제가 된다. 현재 쓰이고 있는 로마자 띄어쓰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일본식 표기를 주장한 학자의 연구¹¹⁾에 의해 체계화된 다마루(田丸)식은 단어를 띄어 쓰되 붙여 써야 하는 것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띄어쓰기를 통해 의미의 구별을 나타내려 한 점이 큰 특징이다. 조사 어미류의 띄어쓰기도 그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12)

다마루식	동대시스템	漢字가나文
ㄱ. subete no Gen'in(어떤 일의 모든 원인) subeteno Gen'in(온갖 원인)	ㄱ'. subete no gen'in	すべての原因
ㄴ. sannin no Haha(세 아이의 엄마) sanninno Haha(엄마 세 명)	ㄴ'. sannin no haha	三人の母
ㄷ. kono Kaki no Ki no sitani	ㄷ'. kono kaki no ki no sita ni	この柿の木の下に
ㄹ. konnani rippana	ㄹ'. konna ni rippa na	こんなに立派な
ㄹ. kôiu Hanasi o anotokini	ㄹ'. kô iu hanasi o ano toki ni	こいう話をあの時に
ㅁ. kôsite Baai ni anohito wa	ㅁ'. kô sita baai ni ano hito wa	こうした場合にあのの人に

11) 일본식 로마자 표기를 연구하여 온 田丸卓郎(1920), 〈ローマ字文の研究〉에 의해 띄어쓰기가 체계화되었다.

위의 예(ㄷ-ㅂ)에서 'ni'를 주목하여 보면 붙여 쓴 세 예와 띄어 쓴 한 예의 구별을 어떻게 한 것인지, 쓰는 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 같은 난점의 소지를 없애며 가능한 한 어형을 짧게 하고 명사를 대문자로 쓰는 구별도 없앤 것이 '東大시스템'이다. 그리고 합성어나 접속조사 등에서도 차이가 난다¹²⁾. 주로 기계적 처리를 위한 일본어 자료 구축에 이 '동대시스템'이 많이 쓰여 왔다.

4.3 의무 교육에서 익히는 로마자 표기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로마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는 소학교 4학년에 로마자 표기 음절표가 배당되어 있다. 로마자 교육의 배경과 목표는 '능률성, 통용성, 논리성, 국제성'에 있다고 한다. 문자생활의 능률화를 꾀하고, 국민생활에 이용되도록 하며, 음소 표기를 통해 일본어에 관한 논리적 이해를 도모하며, 로마자 사용 지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오카 외 1962 : 79). 이런 일본의 로마자는 실생활에 깊이 파고 들어 있다.

12) 대조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다마루식	동대시스템	한자 가나문
합 성 어	hattensuru Kôgyô-kokka	hatten suru Kôgyô kokka	發展する工業國家
접 속 어	dakara Amerikasikino Seikatu wa gôritekini	dakara amerika-siki no seikatu wa gôriteki ni	だからアメリカしきの 生活は合理的に
접속조사	sizukana Heya na node sizukani hibiku noni	sizuka na heya na no de sizuka ni hibiku no ni	静かな部屋なので 静かに響くのに
접속조사	taberuto hutoru	taberu to hutoru	食べると太る

로마자 표기 운동의 원래 목적이었던 한자 폐지에는 못 미치는지 모르겠으나 국철이나 지하철 등의 역명 표기에는 한자, 가나와 나란히 로마자 표기가 되어 있다. 로마자 표기는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표기인 셈이다. 이렇게 친숙해진 로마자는 신상품명, 상호명 등에 널리 쓰이는데 외제 특히 서양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외래어 사용의 범람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식면에서 로마자 표기어와 외래어의 구별이 약화된 탓인지도 모른다. 로마자를 마음대로 부리어 쓰는 경향이 생겨, SATOH와 같은 현행 기준에는 없는 표기도 나타나고 있다.

4.4 전망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은 결국 일본어 음운의 변이음을 표기하느냐 않느냐 또 한 별개의 음운으로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표준식은 가능한 변이음을 다 표기하려고 하였으나, 음절 표기는 보장하려고 한 반면, 일본식은 변이음의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식이 처음 주창된 1880년대의 일본어, 즉 가나의 정서법은 현재와는 다른, 곧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역사적 철자법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식의 주창자는 로마자 표기의 근거를 정서법에 둘 수 없었다. 그 대신 음가를 보일 수 있는 五十音圖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일본식은 불완전한 전자법이었던 것이다.

전사법(transcription)이나 전자법(transliteration)이나의 구별에서 보면 표준식은 음절을 유지하기 위해 무성 모음도 표기하는 불완전한 전사법이며, 일본식은 앞에서 말한 대로 불완전한 전자법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정서법은 1946년에 이어 1986년 現代語音에 기초한 가나 철자법을 갖게 되었다. 철자법이 일본어의 표음 위주의 표기가 되었으므로 일본식의 로마자 표기는 곧 전자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어 외래어 표기는 1991년에 개정되면서 일반적으로 적을 수 있는 13개 음절(シエ, チェ, ツア, ツェ, ツォ, ティ, ファ, フィ, フェ, フォ, ジェ, デュ : 가타카나 표기)과 원어에 가깝게 적으려고 할 때 쓰는 20개의 음절(イエ, ウィ, ウェ, ウォ, クア, クィ, クェ, クォ, ツィ, トゥ, グア, ドゥ, ヴァ, ヴィ, ヴ, ヴェ, ヴォ, テュ, フュ, ヴュ)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지난날 외래어의 표기를 일본어에서 인정된 음절로만 한정하려는 제한이 풀리게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본어 문장을 보자.

- (12) ただちにパーティをひらくつもりではありません。(즉시 파티를 열 생각은 아닙니다.)

tadati ni pâ(?) o hiraku tumori de wa ari masen. (제1표 : 훈령식)

tadachi ni pâti o hiraku tsumori de wa ari masen. (제2표 : 표준식)

가타카나 표기(パーティ)가 섞인 일본어 문장을 로마자화하려면 제1표로는 불가능해진다. 요즘 특히 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는 일본어 문장을 로마자로 입력하거나 자료화하려면 새로 추가된 33개의 음절을 표기할 수 있는 로마자 문자가 배당되어야 한다. 3.1의 제1표에 제시된 것은 일본어의 음절이 100개라는 것인데 외래어 표기에서 일반적으로 적을 수 있게 한 13개의 음절과 원어에 가까운 표기 20개를 거기에 더하면 음절표의 근본적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곧 133개 음절의 배열을 새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본어의 표기 전체에 완결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필자의 생각을 붙임으로 보임). 새롭게 조정된 음절표를 가지고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자는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음절표를 만들 때는 (8)의 제2표 표준식의 표기들과 (9)의 일본식 표기는 새로운 음운 표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100여년에 걸친 대립이 해소되리라 전망된다.

끝으로 이번에 국립국어연구원과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한국어 로마자 표기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원칙이 철저한 轉字(1음운을 1기호로 표기)임을 밝히고 있는데, 국어의 정서법이 음운을 표기하도록(형태음소론적 표기) 되어 있으므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다만 일본어는 가능한 음절의 표기를 새로 총 망라하여도 133개에 불과하나 국어의 경우는 수 천에 이르며, 국어에는 음절의 연결에 따른 다양한 음운변화 현상이 있으나 로마자 표기로 나타내기 어렵고, 일단 한글로 환원하여 그 발음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훗 이불, 진리, 같이, 독립……). 일본어에는 우리말과 같은 연음, 동화 현상이 없으므로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한다면 앞서 본 전자식 로마자 표기에서도 쉽게 발음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표준식(소위 表音式, 轉寫式)과 일본식(소위 轉字式)의 차이는 100개의 음절 가운데 20개의 음절만이 표기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모음은 같고 자음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음의 갯수로 보면 일본식은 12개의 자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고 표준식은 거기에 5개의 자음을 더하여 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현행에서 새 개정안으로 바뀐다면 단모음 9개 표기 가운데에서 6개(ㄱ, ㄷ, ㄴ, ㄹ, ㅁ, ㅂ)가, 자음 19개 표기에서는 6개를 제외한 나머지(ㅅ, ㅈ, ㅊ, ㅌ, ㅍ, ㅊ, ㅍ, ㅌ, ㅍ, ㅊ, ㅌ, ㅍ, ㅊ, ㅌ, ㅍ, ㅊ, ㅌ, ㅍ)가 달라지고, 거기에 이중모음, 받침 표기, 또 음운변화의 결과를 적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대적인 변경이 되는 것과는 대조된다.

다만 경계 표시가 필요한 ‘겉옷 get-os, 옷안 os-an’ 같은 것이 너무 많아져 눈에 거슬릴 것으로 보이며, 로마자 표기가 한글맞춤법에 따라 적는다고 한 만큼, 한글과 로마자 대응을 보이는 모음 자음의 배열 순서는 한글맞춤법의 제2장 자모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허용에 의해 길어지는 국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 또한 고유명사 표기만이 아닌 국어 문장의 표기 또는 컴퓨터 로마자 입력에 관한 고려도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 가메이 외(龜井孝 外 1964), 移りゆく古代語, 日本語の歴史 4, 平凡社, 東京.
- 강인선(1993), '日本の言語政策', 세계의 언어정책, 서울: 태학사.
- 강인선(1996), '현행 일본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6-4,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고쿠고각카이(國語學會 1980), 國語學大辭典, 東京: 東京堂出版.
- 구사카베(日下部文夫 1977), '日本のローマ字', 岩波講座 日本語8 文字, 東京: 岩波書店.
- 긴다이치 외(金田一春彦 外 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東京: 大修館書店.
- 다케베(武部良明 1977), '國語國字問題の由來', 岩波講座 日本語3 國語國字問題, 東京: 岩波書店.
- 다케베(武部良明 1979), 日本語の表記, 角川小辭典29, 東京: 角川書店.
- 분카쇼(文化廳 文化部國語課 1991), 國語審議會答申・建議集, 東京.
- 오가와 외(小川芳男 外 1982), 日本語教育大事典, 東京: 大修館書店.
- 오카·도키에다 감수(岡一男・時枝誠記 監修 1962), 國語國文學資料圖解大事典, 東京: 全國教育圖書株式會社.
- 우메다(梅田博之 1983), 韓國語의 音聲學的 研究 -日本語와의 對照를 中心으로-, 大邱: 螢雪出版社.
- 핫토리(服部四郎 1979), 新版 音韻論と正書法, 東京: 大修館書店.

